

아동의 연령, 공감능력 및 조망수용능력이 이타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ge,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on
Altruistic Lying of Young Children*

이지혜(Ji-Hye Lee)¹⁾

송하나(Hana Song)²⁾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age,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on altruistic lying in 5 and 6 year old children. Eighty three children answered a question as to whether a protagonist would lie after listening to three vignettes involving altruistic lies. Korean versions of the Affective Situation Test(AST) and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task were used to measure children's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truistic lying by age. Altruistic lie by childre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ir age,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In particular, age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altruistic lie in young children in Korea.

Keywords : 이타적 거짓말(altruistic lie),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ability), 공감(empathy), 아동 (preschool children), 연령(age).

* 본 논문은 2012년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졸업, 디딤 소아청소년 마음 연구소

²⁾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e Le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ro-gu, Seoul 110-745, Korea
E-mail : agigurum@naver.com

I. 서론

아동은 어려서부터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행동들을 학습하고 발달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규칙을 배우면서 아동들은 거짓말과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승인에 대해 배우게 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나쁜 일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습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선악의 기준에는 때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지만 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진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Heyman, Sweet, & Lee, 2009). 더욱이 이것이 의도적인 행위라면, 이러한 경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저해함으로써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타적 거짓말은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타적 거짓말은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Talwar & Lee, 2002). 이러한 표출 규칙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Liebman, 2005). 즉,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인지적 능력과 이타적 성향, 도덕적 기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타적 거짓말에 대한 선행연구들(Lee, 2010; Talwar & Lee, 2002; Xu, Bao, Fu, Talwar, &

Lee, 2010)은 이타적 거짓말을 포함한 사회적 거짓말의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타인지향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보호적인 기능이다. 자기보호적인 거짓말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타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타적 거짓말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배려하고 타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구별된다.

어린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 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ussey(1999)는 4, 8, 11세 아동들이 세 가지 유형의 거짓말 상황에서 거짓말의 의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4세의 어린 아동들도 거짓말의 특성과 의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alwar와 Lee(2002)는 루즈 테스트 실험을 통해 4세의 어린 아동도 이타적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후 Talwar, Murphy와 Lee(2007)는 실망스러운 선물 과제를 사용하여 3세에서 11세 아동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마음에 든다고 대답한 아동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들의 응답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교해진다고 하였지만 아동들이 타인지향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한편, Xu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체계화 시키지 못한 거짓말의 동기적인 측면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들은 Talwar 등(2007)이 사용한 실망스러운 선물 과제를 통해 7, 9, 11세 아동들의 거짓말 동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어린 아동은 자기지향적인 동기로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지향적인 동기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Popliger, Talwar와 Crossman (2011)은 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타적 거짓말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4세의 어린아동들도 타인지향적인 동기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더 나이든 아동들도 자기지향적인 동기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많아 이타적인 거짓말이 연령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연령 외에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것은 공감을 들 수 있다. Eisenberg와 Miller(1987)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고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공감은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고통으로 구분되는데(Eisenberg & Miller, 1987) 개인적 고통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비교하여 공감적 고통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고 이타적인 동기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Hoffman, 1975). 이타적 거짓말의 동기와 비교할 때 타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Talwar와 Lee(2002) 역시 이타적 거짓말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급은 공감과 이타적 거짓말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감능력은 주로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Buckley, Siegel과 Ness (1979)는 3세에서 8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기와 나누기 행동을 관찰하였다. 친구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한 그룹

의 공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Findlay, Girardi와 Coplan (2006)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높지는 않지만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Eisenberg & Miller, 1987; Underwood & Moore, 1982). 이와 같이 공감이 친사회적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공감과 이타적 거짓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공감 외에 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을 고려하였다. 조망수용능력은 자기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Steins, 2000). 이타적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망수용능력은 공감과 더불어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피아제는 전조작기 이후가 되어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도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Underwood & Moore, 1982).

Underwood와 Moore(1982)는 조망수용능력의 세 가지 범주인 지각적, 사회인지적, 정서적 요소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들 간의 관련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4, 6, 8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하였을 때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아동들이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1).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를 대상으

로 이타적 거짓말이 연령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 보고, 공감과 조망수용능력 또한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연령,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이 이타적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 이타적 거짓말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공감능력은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은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연령, 공감능력, 조망수용 능력이 이타적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5, 6세 83명(남아 39명, 여아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타적 거짓말을 한 아동을 구별해야 하였으므로 아동에게 타인을 배려해야하는 상황을 묻고 그 상황에서 이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답한 아동만을 선별하였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19명은 제외되었다. 5, 6세는 사회인지능력과 친사회적 표출규칙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Bussey, 1999; Talwar & Lee, 2002) 본 연구에서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이타적 거짓말

본 연구에서는 Happe(1994)와 Bussey(1999)가 고안한 이야기를 Son(2001)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세 가지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 이야기 과제들은 주인공이 부모, 또래, 그리고 타인에게 이타적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각 이야기의 내용은 (1) 맛이 없는 빵을 주신 아주머니가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상황, (2) 원하지 않는 선물을 준 아빠가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는 상황, 그리고 (3)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온 친구가 안경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동에게 질문한 뒤,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한 아동에게는 그 이유를 묻고 반응을 기록하였다.

아동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대답한 경우(예: 마음이 아플까봐, 속상할까봐 등)에는 타인 지향적인 이타적 이유로 분류하여 2점을 주었으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자기지향적인 이유(예: 혼날까봐, 화낼까봐, 날 싫어할까봐 등)를 답한 경우에는 1점을 주었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Cronbach's alpha는 .84였다.

2) 공감능력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Feshbach와 Roe(1968)가 개발한 Affective Situation Test(AST)를 Moon(2004)이 국내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정서를 포함한 8가지 이야기 상황을 들려준 후, 이야기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묻고

그 정서와 일치하는 얼굴 표정을 선택하는 도구이다. 8가지 이야기는 기쁨(생일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함, 노래대회에서 상을 받음), 슬픔(또래에게서 함께 놀기를 거부당함, 정든 개를 잃어버림), 공포(개가 뒤에서 쫓아옴, 엄마를 잃어버림), 분노(놀던 장난감을 빼앗김, 운동회에서 친구가 밀어 넘어져 우승을 못함)이다.

아동에게 이야기를 제시한 후 주인공의 기분이 어떻게 답하는 아동의 언어 반응을 기록하였다. 또한 얼굴 표정을 비언어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아동이 정서적 단어를 정확히 언급하여 옳은 반응을 한 경우에는 2점, 좋다-나쁘다 차원에서만 맞는 답을 한 경우에는 1점, 무반응이거나 주인공의 정서와 다른 반응을 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또한,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 반응과 아동이 선택한 얼굴표정이 일치할 때 1점, 일치하지 않을 때 0점을 주어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 점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언어적 반응 점수와 비언어적 반응 점수를 합한 공감전체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65였다.

3) 조망수용능력

본 연구에서는 Hudson, Forman과 Brion-Meisels (1982)의 조망수용능력 검사 도구를 Shin(1996)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였으므로 인지적 조망수용능력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4개의 이야기 중 2개는 타인의 의도를, 다른 2개는 타인의 사고를 측정하였다. 하위 요인인 타인 의도와 타인 사고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의 점수를 합하여 조망수용능력 총점을 구하였으며 그 범위는 0에서 18점이었다.

(1) 타인 의도에 대한 조망수용능력

타인 의도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은 숨바꼭질하는 또래의 남녀 아동이 한 명씩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슬래인 여아가 숨어있는 남아를 발견하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남아가 도망가다 넘어진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남아가 우연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크게 다치지 않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아가 도망가는 남아를 고의로 밀어서 남아가 무릎을 크게 다친다.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야,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해볼래?”라고 질문하고, 아동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아동의 응답에서 우연성과 고의성에 대한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로 0에서 5점을 주었고, 그 기준을 Table 1과 같다.

〈Table 1〉 Scoring criteria of perspective taking of others' intention

Scoring	Scoring criteria
5	When describes all the situations and explains about the intention obviously
4	When describes the situation but misses some situation and intention
3	When describes the situation partially but the intentional situation and the incident not in sequence
2	When describes the situation irrationally and does not include the intention
1	When understands the situation but gives wrong description
0	When doesn't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describes completely different with the situation or cannot answer at all

두 이야기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의 총점은 1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의도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두 명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87%였다.

(2) 타인의 사고에 대한 조망수용능력

타인의 사고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남자아이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집으로 도망을 와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그때 엄마는 아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왜 놀라는지 궁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야기 제시 후, 아동에게 “○○야, 그러면 이 카드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해 보겠니?”, “남자아이는 왜 놀라고 있니?”와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왜 놀란다고 생각할까?”를 질문하고 그 반응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공항에서 아빠와 이별한 여자아이가 우체부가 배달해 온 소포를 열어보고 그 안에 비행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우는 내용이다.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에게 “여자아이가 왜 울고 있니?”, “어머니는 여자아이가 왜 운다고 생각할까?”를 묻고, 아동의 응답을 채점하였다.

아동의 응답이 자아중심적인 입장에서 타인

지향적인 입장을 제시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Table 2와 같은 기준으로 0점에서 4점을 주었다. 두 이야기의 합은 총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사고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점자간 일치도는 82%였다.

3. 연구절차

5, 6세 아동 총 1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검사 실시에 관해 사전 훈련을 받은 아동학과 발달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함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과제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아동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 과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실험은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기관장과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방문하여 기관 내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라포 형성과 공감 및 조망수용과제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이타적 거짓말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에게 세 가지 과제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공감능력과 조망수용능력 20분, 친사회적 거짓말 과제 10분 정도로 전체 약 30분이었다.

<Table 2> Scoring criteria of perspective taking of others' thought

Scoring	Scoring criteria
4	When describes all the situation in the third person-perspective
3	When the third person cannot understand obviously but indicates its atmosphere or possibilities
2	When describes the situation in an egocentric way but appear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1	When describes the situation in egocentric and ambiguous way and appears no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0	When doesn't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describes completely different with the situation or cannot answer at all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 이타적 거짓말에서의 연령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rogram 18.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 및 이타적 거짓말의 차이

Table 3은 연구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전체 아동과 각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아동의 공감능력과 조망수용능력의 평균이 5세보다 6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세는 5세보다 이타적 거짓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5, df = 81, p < .05$).

2. 아동의 연령,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과 이타적 거짓말 간의 관계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은 연령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이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r = .26, p < .05$). 또한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은 공감능력($r = .27, p < .01$), 조망수용능력($r = .32, p < .01$) 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다른 사람의 의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5 years (<i>n</i> = 50)		6 years (<i>n</i> = 33)		Total (<i>n</i> = 83)		<i>t</i>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Empathy	15.62	3.27	16.27	2.95	15.88	3.14	-0.93	.36
Perspective taking ability	10.84	3.70	12.06	2.30	11.33	3.26	-1.69	.10
Altruistic lie	2.38	2.00	3.52	2.17	2.83	2.13	-2.45*	.02

* $p < .05$.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age, empathy, perspective taking ability and altruistic lie (*N* = 83)

	1	2	3
1. Age	-		
2. Empathy	.10	-	
3. Perspective taking ability	.18	.31**	-
4. Altruistic lie	.26*	.27**	.32**

* $p < .05$. ** $p < .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ge,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as predictors of altruistic lie (N = 83)

	β	t	F	p
Age	.21	2.00*		
Empathy	1.75	1.69	6.83	.002.
Perspective taking ability	.28	2.68**		

* $p < .05$. ** $p < .01$.

도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잘 느낄수록 이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타적 거짓말에 대한 연령, 공감능력과 조망 수용능력의 영향

아동의 연령과 공감능력 및 조망수용능력이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은 아동의 연령($\beta = .21, p < .05$)과 조망수용능력($\beta = .28, p < .01$)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으며 아동의 공감 능력은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이 높고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을 잘 이해할수록 이타적인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개의 예측 변인은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 전체 변량의 17%를 설명했으며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타

적 거짓말에 연령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령과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이 아동의 이타적 거짓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 이타적 거짓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타적 거짓말에서만 5세와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세보다 6세가 더 이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였는데, 이 결과는 Talwar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이타적인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다른 선행 연구(Jung, 2013; Popliger et al., 2011)를 지지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도 연령이 이타적 거짓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 이해가 연령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변화한다는 뼈아제나 콜버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Kohlberg 등(Colby & Kohlberg, 1987; Kohlberg, 1963)은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며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나쁜 것이라는 한 가지 입장만을 고수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다면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예를 들

어, 잘 알려진 하인츠 이야기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주인공을 행위의 차원에서만 고려하지 않고 내적인 동기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선악에 대해 보다 상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나이든 아동들은 이타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차원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부모나 다른 대상들로부터 사회 관습적 규칙들을 배우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재화된 규칙들이 절대적이라면 거짓말이라는 나쁜 행동을 하는 이타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거짓말은 내재화된 친사회적 규칙들이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발달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다음으로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은 이타적 거짓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이해할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타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Park, 2011; Underwood & Moore, 1982). 조망수용과 비교하여, 공감은 이타적 거짓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수용능력을 보다 인지적인 차원, 공감을 보다 동정적인 차원이라고 볼 때, 친사회적 거짓말에는 인지적인 차원이 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감이나 조망수용능력은 모두 연령과는 큰 관련성이 없었다. 따라서 인지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이 연령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친사회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연구에서 더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

적인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중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역할을 밝혔다. 이타적 거짓말은 아동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논란을 가져오는 주제이다. 그 이유는 이타적이지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옳은 상황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일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를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타인을 진정성 있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로와 공격성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동이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된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어린 유아기부터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을 기르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여 이타적 거짓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 아동이 이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는 관찰을 통해 추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공감능력 및 조망수용능력과 같은 변인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부모관련 변인과 친구관련 변인, 사회 맥락적 변인 등 이타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추후 연구에서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5, 6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더 어린 영아와 유아로 확대하여 이타적 거짓말의 발달적 경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uckley, N., Siegel, L. S., & Ness, S. (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3), 329-330.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6), 1338-1347.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ement(Vol.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 and seven-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indlay, L. C., Girardi, A., & Coplan, R. J. (2006).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social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3), 347-359.
- Happe, F.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 Disorders*, 24, 129-154.
- Heyman, G. D., Sweet, M. A., & Lee, K. (2009). Children's reasoning about lie-telling and truth-telling in politeness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8(3), 728-746.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07-622.
- Hudson, L. M., Forman, E. A., & Brion-Meisels, S. (1982). Role taking as a predictor of prosocial behavior in cross-age tutors. *Child Development*, 53, 1320-1329.
- Jung, H. (2013). The 3-, 4-, and 5-year-old children's prosocial 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ohlberg, L.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a moral order: I.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a*, 6, 11-33.
- Lee, H. (2010). The emergence of self-protective & prosocial lie in early childhood and their developmental correlates: Looking through the 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Liebman, J. I. (2005). The developmental patterns and cognitive predictors of prosocial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Theory of mind and inhibitory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Virginia, USA.
- Moon, Y. (2004).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by type on children's empathy, perspective-taking &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115-143.
- Park, J. (2011). Development of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and the role of perspective-taking in the dictator ga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Popliger, M., Talwar, V., & Crossman, A. (2011).

- Predictors of children's prosocial lie-telling: Motivation, socialization variables, and moral understa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3), 373-392.
- Shin, H. (1996). The effects of understanding activities of self and others on preschool children's self-concept,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 E. K. (2001). The study of a child's and mother'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s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teins, G. (2000). Motivation in person perception: Role of the other's perspectiv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6), 692-709.
- Talwar, V., & Lee, K. (2002). Emergence of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2), 160-181.
- Talwar, V., Murphy, S. M.,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1), 1-11.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Xu, F., Bao, X., Fu, G., Talwar, V., & Lee, K. (2010). Lying and truth-telling in children: From concept to action. *Child Development*, 81(2), 581-596.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August 8, 2014

Accepted August 9, 2014